

미국 및 북한 문제와 관련된 갈등 해결의 기독교윤리적 접근

이장형 (백석대학교 교수 / 기독교윤리학)

I. 서론

II. 여러 갈등의 양상과 전망

1.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
2. 전쟁의 참혹성과 통전적 시각의 필요성

III. 기독교윤리적 해결책 모색

1. 관용과 용서의 의미 및 필요성
2. 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 필요성
3. 북한 문제의 특수성 인식 필요성

IV. 결론

• ABSTRACT •

In human history antagonism never ceases to stop its presence in various forms. However, Christianity should not abandon its relentless efforts to overcome and resolve antagonism. Especially in Korean society antagonism continues to deepen over a series of thorny problems including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widespread and worsening antagonism in Korean society has its ideologically deep-rooted history and carries various natures and characters within itself. Some types of antagonism exemplified in dissention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and a sense of incompatibility caused by a widening gap in real estate ownership rates originates in selfish culture and economic neo-liberalism, but other types of antagonism such as national dissention concerning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lies in different ideological orientations and heterogeneous backgrounds of each individual. For this reason, diverse life experiences of each individual influence his or her own perspective on North Korea.

The recent inter-Korean relationship has so aggravated that both sides are even considering the suspension of economic interchange, which goes on increasing in size due to Mt. Kumgan tourism program and the Kaesu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Furthermore, South Korean'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 turned sour. More concerned is that conservative churches and progressive churches are so fiercely divided along theological lines over these issues.

Under these circumstances, Korean Christianity is called upon t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ward overcoming widespread antagonism and toward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and reconciliation. It is argued that the fulfillment of this significant task would not come from a simple application of western theological theories; rather, it would be possible by means of biblically inspired perspectives on such issues as unification, world, nation, national security, economy, as well as constant efforts to cultivate tolerance and to reach social integration. Historically Christian ethical teachings have pursued unity across all different ages and, at the same time, sought relevance and diversity by reacting differently in different situations.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Christian ethical argument and theological guidelines necessary for dealing with the contemporary issues.

Keywords : peaceful solution, antagonism,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social integration, reconciliation

I. 서론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발표 및 방사능 발생의 확인,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¹⁾ 등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현실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2년 서해교전 사태 등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갈등과 긴장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로 향하던 한반도의 긴장은 이제 더욱 첨예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대북 지원 및 통일논의에 있어서 남북 갈등보다도 더 첨예한 양상의 소위 이념과 이해관계에 따른 ‘남남갈등’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핵실험 이후 나온 기독교계의 반응을 보더라도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핵실험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더라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처지와 주장에 더욱 귀 기울이며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 진솔하게 자신을 개방해야한다”고 한 반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민족의 안녕과 번영의 기반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치명타를 가하는 배신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²⁾ ‘기도해야’한다는 공통의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전보다도 더욱 극단의 길을 가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앞서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기독교윤리는 어떤 답을 주어야 할 것인가?

지난 2006년 9월 26일자 《경향신문》은 ‘미국의 지저스 크라이스트’란 기사에서 한·미간의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이양 환수 문제 논란 과정 중 일어난 ‘이데올로기 문제’를 ‘승미 반공 이데올로기’로 표현하고 있다.³⁾ 이 논란의 핵심에는 한국의 보수층 중 기독교 보수교단 즉 한국기

1) 유엔에서 결의된 주요 제재의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 입장을 감안, 군사적 제재를 배제하고, 경제 외교적 제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금융제재와 교역봉쇄, 여행금지, 화물검색 등 강도 높은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2) 《한국 기독교공보》 2006년 10월 14일자 1면 참조.

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자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종교의 기능과 역할인 세상의 모순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06년 8월 14일자 《기독신문》은 “이 사회의 갈등에 교회도 책임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적고 있다. 기독신문은 최근 우리사회의 현상을 ‘갈등 현상의 난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갈등의 요인을 다음과 같이 이념에서 찾고 있었다.

“우리 사회는 진보, 보수, 진보좌파, 중도, 보수우파, 친미, 숭미, 용미, 반미, 친북, 반북 등으로 구분된다. 노사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정부와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 사회경제적 계층간의 갈등, 이익집단간의 갈등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갈등으로 남북간의 갈등, 한일간의 갈등 등 너무나 많은 갈등 구조 속에서 심히 염려되는 사회가 아닐 수 없다.”

인간사 속에서 갈등은 여러 면에서 있어 왔다. 이 갈등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극복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하고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념적으로 뿌리 깊은 역사가 있으며 다양한 성향이 자리 잡고 있다. 즉, 노사 갈등 및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갈등은 이기주의 및 경제적 자유주의 등과 관련된 반면에 미국, 북한과 관련된 갈등의 저변에는 민족해방의 역사 이후 시작된 이데올로기적 경향성과 각 개인의 삶의 배경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북한에 대한 입장은 개인 전기에 따라서 여러 입장 차이들을 보이고 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는 금강산, 개성 개방 등에 힘입어 증가 추세에 있던 경제적 교류의 중단까지 논의될 만큼 1993년 핵 위기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이며, 미국과의 관계 또한 매우 불편한 관계에 처해 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소위 보수와 진보의 교회 및 교단적 성향들이 이런

3) 《경향신문》 2006년 9월 26일자 ‘김철웅 칼럼’ 참조.

문제 앞에서 더욱 침묵하고 갈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예로, 얼마 전 비교적 여러 교단의 신학자 및 일반학자를 아우르는 학회의 운영이사회가 열린 적이 있다. 이사회 회무 처리 중 한 회원 교수께서 긴급 발의를 했다. 지금 미국에 대한 작통권 이양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한미정상 회담이 곧 있게 되니, 학자들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작통권 이양을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하지 않겠는가하는 강력한 요청이었다. 만일 지금처럼 북한의 핵실험 보도가 나온 상황이었다면 더 강경한 태도의 발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입장 표명은 할 수 있지만 학회의 성격상 선언문 채택 등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여 넘어갔으나, 회원들의 생각은 입장 및 성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만약 더 이상 이 문제가 거론 되었더라면 회의 전체에 악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 한국 기독교는 북한과 미국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사회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넘어서서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 기독교는 사회통합의 메카니즘을 가동하고, 갈등 타파를 위한 공감 인식과 대타협의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자세는 서구 신학의 단순한 답습으로만은 나올 수 없고,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통일적인 세계관과 국가관, 안보관, 경제관, 관용과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기독교윤리적 가르침은 전통적으로 시대를 넘어서는 단일성과 아울러,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응답하는 적실성 및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 본 논문은 우리 시대의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요청되는 기독교 윤리적 논변과 신학적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여러 갈등의 양상과 전망

1.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

미국과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은 한미FTA문제, 주한 미군 기지의 평택 재배치⁴⁾,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대한 대처, 한국군의 이라크 전쟁 파병 연장 등 다양한 차원에서 도출되고 있다. 어찌 보면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소위 보수와 진보 양 쪽의 입장을 들어 보면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치 기독교윤리학사 속에서 성전론자(Holy war)들과 평화주의자(Pacifism)들이 대립했던 것처럼 양자는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기도 하다.

먼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기독교의 반응도 찬성과 반대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 얼마 전 한미FTA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 되었다. 그 출범식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이 채택되었다.⁵⁾

“그 동안 사회정의와 평화를 세우고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이 감당해 가야 할 사명이라 믿으며 활동해온 교회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은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고, 사회 공공성을 약화시키며 양극화를 심화

4)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지 이외에 정부는 용산 및 미2사단 대체부지로 평성 K-6에 285만평, 송탄 K-5에 64만평, 총 349만평을 추가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평택의 미군기지 면적은 806만 8만평으로 평택 전체면적의 5.9%에 이르게 된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약 3배 크기(여의도는 약 250만평)가 넘는다.

5) 한미FTA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가 2006년 9월 4일(월)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 모임은 한미FTA 제3차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KNCC 교회와사회위원회를 비롯하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3개 교단(예장, 감리교, 기장) 농목,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의 복음주의 단체들은 수차례의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사전 이해와 논의 과정을 거쳤고, 교회내의 보다 확대된 인식공유와 대책활동을 위해 범 기독교적인 공동의 대책기구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느끼게 했다.”

선언문의 요지는 FTA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신력 있는 단체의 사전 영향평가의 부족, 협상문 비공개 등 국민적 홍보나 동의를 얻는 민주적 과정의 부재라는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협상의 진행에 있어서도 소위 4대 선결 조건을 미리 수용한 점, 협상단의 구성이 졸속이고 협상력 역시 상대적으로 전문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 문제를 걱정해 온 교계 입장에서 볼 때, 한미 FTA 협상은 보다 심화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계에서는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속속 입장과 대응 방식들을 내놓고 있는데, 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연구위원회 발표 논문 중 최영실 교수는 성서적 전거를 고찰하며 오늘 한반도의 현실을 분석했다.⁶⁾

최 교수는 예언자 이사야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도 물질을 추구하며 안일하게 살던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치와 안일에 빠져 있는 여인들’에 비유한 것과 같이, 오늘 한반도에서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대량과괴 무기위협, 인권문제, 핵무기 개발위협 등을 제기하며 고조되고 있는 긴장 국면 속에서도, 하나님 대신 외세를 의존하고 분단이 테올로기를 이용해 자신들만의 평안을 구하는 지도자들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⁷⁾

유경동 교수는 윤리학적 입장에서 현대 문명의 폭력성을 타자에 대한

6) 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연구위원회(위원장 이원규 교수)는 2005년 5월 12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해방60주년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신학적 성찰”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7) 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연구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한반도의 위기와 참된 해방의 길 -성서적 관점에서-’ 참조

이해부족으로 진단했다. 유교수는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기보다는 항상 나 중심적인 사고 틀 속에서 타자를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의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를 세계에 뿌리내려야 한다. 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말이 그 구체적인 예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 문명의 또 다른 특징인 복잡성(미국에는 100만개의 직업이 있다.)으로 인해 현대 사회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에너지 위기와 자기 중심성이 결합되면서 끊임없는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⁸⁾

그런데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신학적 분석과 이론적 대응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조직 및 단체 결성과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지난 8월 24일자 《크리스천 투데이》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안보 위협”이라는 제목 하에 보수 교계 단체들이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선부론 논의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결집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다.⁹⁾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주도 아래 기독교 사회책임, 기독교애국운동, 한국 미래포럼, 한국 기독교신앙실천운동연합회, 기독교교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 평신도단체협의회, 개신교원로장로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한국교회지도자협의회 등 10개 단체는 ‘국가안보를 위한 기독교 긴급행동’이라는 한시적 단체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요인 가운데 미국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전통적인 우방이면서도 러시아와 함께 남북 분단의 양대 책임자이기도 한 미국은 그 이해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면모를

8) 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연구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국가 폭력과 기독교 타자성의 의미’ 참조

9) 《크리스천 투데이》 2006년 8월 24일자.

갖고 있다. 또한 지구화 및 세계화의 추세와 공산주의와 동구권의 몰락은 실제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얼마 전 우리 나라에서 많은 관객을 동원한 '괴물'이란 영화가 있다.¹⁰⁾ 이 영화는 그 개봉시점, 미성년자 관람가능 등 여러 요인 등이 합쳐져서 많은 관람객을 동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저변에 상당한 반미정서가 깔려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주인공 박강두(송강호 분)의 말을 듣는 척 하지만 결국은 무시하는 미국 보건의 당국자의 태도 등에서 말이다.

그런데 미국에 대한 입장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최근의 국제 정세는 문제의 원인 및 해결책이 상당 부분 초강대국인 미국의 행보에 달려 있는데, 국제 질서 및 힘의 균형에 있어서 미국의 힘 및 영향력은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하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이스라엘 및 주변국들의 분쟁 문제에 대해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미국의 힘을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은 사실상 미군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미군의 해외 군가시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취하는 행동은 미국이 허가하고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이 바라는 수준에서 밀리미터하고 더 나간다면 워싱턴에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멈춥니다.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워싱턴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더 체니의 업무에 방해가 되니 팔레스타인 도시에서 탱크와 군대를 철수 시키라고 말하자 이스라엘은 즉시 철군했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요. 마피아하고 똑같습니다. 보스가 명령을 하면 부하들은 즉시 수행

10) 영화 '괴물'은 봉준호 감독의 작품으로, 송강호, 변희봉, 배두나 등이 출연하였다. 상영시간은 119분이며, 2006년 7월 27일에 개봉하였다. 제작사는 '청어람'이다.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만행이나 터키의 만행이라고 말하는 대신 미국의 만행이라고 해야 합니다. 근원이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¹¹⁾

2. 전쟁의 참혹성과 통전적 시각의 필요성

앞에서 언급하였듯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와 보수, 기성세대 및 신세대, 성장주의 대 분배주의 등 이념적 경향성에 기인한 갈등과 대립이 드러나고 있다. 수 년 전에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논란 및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등과 관련해서도 지역 간, 계층 간의 상당한 대립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런 혼란 속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기독교계조차도 통합과 수렴의 역할보다는 소위 보수 계열과 진보 계열로 나누어져서 갈등의 전면에서 서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¹²⁾ 그런데 미국과 북한과 관련된 문제 중 최근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한미연합사 등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 군사적 문제로서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문제를 전제로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대립적인 성향 중에서 폭력과 전쟁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좀 더 근원적인 성찰을 요청하고 있다. 전쟁과 폭력은 인간의 근본악에 기인한 것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폭력을 사용하고, 때로는 이에 대한 필연성과 정당화를 주장하는 경우를 전쟁에서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이 ‘수단’이라는 미명 하에 적극적으로 자행되며, 도덕적 가치판단 자체가 거의 기능을 멈추는 상황이 되기도

11) 존 준커번, 다케이 마사카즈, 홍한별 역, 『권력과 테러』(양철북, 2003), 146-147.

12) 파병, 국가보안법 폐기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당시 대표:길지연)를 위시한 주요 보수교단들은 반대의 소리를 내는 가운데, 대규모 가두집회를 2004년 10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한다. 예를 들어 세계 제2차대전 때 민간인을 포함해 희생자가 6,000만명에 달했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로 78,000명이 죽고 9만 명이 부상을 입었다. 6.25한국 전쟁 때에도 군인 160만명, 민간인 100만명의 희생자가 났다.¹³⁾ 러스킨은 ‘전쟁’이란 글에서 “전쟁은 모든 위대한 예술의 기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는 서구 문명사는 “전쟁을 위한, 전쟁 자체에 대한 열광적인 환희”로 인해서, 고딕 시대의 예술은 그 극치에 달했다가 쇠퇴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¹⁴⁾

“유럽에 평화가 확장되고 확립되어 감에 따라 예술은 쇠퇴했다. 예술은 사치의 극치, 전대미문의 극에 달했으나 생명을 잃었다. 예술을 마침내 향락과 갖가지 타락에 몸을 맡겼어도, 완전히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전혀 시들어 버려서, 우리 민족이나, 프랑스 민족처럼 군인의 삶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아직도 군인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민족들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¹⁵⁾

혹자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이라크 등 이슬람권과 미국의 대립을 이슬람 지하드 성전론자들과 기독교 패권주의의 대결로 해석하기도 한다. 로버트 제윅(Robert Jewett) 등은 Captain America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미국의 영향력과 패권주의를 비판하기도 한다.¹⁶⁾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갈등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북한은 대부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은 상호 매우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친미 성향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입장과 연

13) 김홍철, 『전쟁론』(민음사, 1991), 311.

14) 제임스 레이첼스 편, 황경식 옮김, 『사회윤리의 제문제』(서광사, 1983), 353.

15) John Ruskin, "War," *The Crown of Wild Olive*(1866). *Man and Warfare* (W. Irmischer ed. 1964), 35, 36~41. 앞의 책에서 재인용.

16) 동 제목의 책이 있음. Robert Jewett & John Shelton Lawrence, *Captain America and the Crusade against Evil*, Eerdmans, 2003.

계되는 경향이 있으며, 북한에 대한 이해와 고려 및 지원의 강조는 미국에 대한 자주적인 권리주장과 독자성 강조와 연계되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반드시 이런 경향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상호 연관되는 명목적인 입장에 서기 보다는 보다는, 현실적인 분석을 통해 제 3의 길'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전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 설득력 있는 입장은 '정당 전쟁론'일 것이다. 그러나 정당전쟁론의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더라도, 성전론자들과 평화론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할만한 소리들을 담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하는 현실적인 역할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을 통해 논의된 '정당 전쟁론'적 입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당전쟁론도 결코 모든 종류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가운데 발생하는 무력의 사용 등 전쟁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군인들의 직업적 정당성 확보와 관련하여 언급하였으며, 초기 기독교의 오리겐에서부터 이런 사상의 연원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램지(Ramsy)의 일반적인 논지에 의하면 전쟁은 도덕적일 수 있으며, 때로는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전쟁 자체를 반박하는 모든 논증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입장을 반박하는 가장 강력한 논증들 중 하나인 수소 폭탄과 원자 폭탄의 발달로 인해서 전쟁이 갖는 피해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 램지는 그런 경우는 이미 한계를 넘은 전쟁이라며 반박을 피해가고 있다. 만일 상당량의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상호파멸'이 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정당전쟁론에 있어서의 문제는 사실 전쟁의 정의(definition)에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전쟁의 정의 또한 복잡한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은 무력 또는 폭력

을 사용하는 국제적인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전쟁에 대한 여러 입장들의 상충 및 약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며, 기독교 현실주의와 성서가 말하는 ‘예수의 윤리’적 시각을 함께 갖는 ‘통전적 시각’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¹⁷⁾

Ⅲ. 기독교윤리적 해결책 모색

필자는 한국 사회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 현실주의적 해석과 예수의 이상주의적 윤리를 통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현실주의는 하나의 이상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단순한 인간의 도덕성의 총량 증가에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체제와 관련된 문제 속에서 찾고, 아울러 인간 및 집단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인식이기 때문이다.¹⁸⁾ 정치적, 군사적 현실은 힘이 관계 되는 냉엄한 문제이기엔 순진하게 보아서는 안 되며, 인간의 악의 본성에도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서적 가르침과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일정한 자세 및 지향점을 갖는 가운데서 유지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윤리적 덕목은 현실에서는 완전히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윤리는 현실의 정당화에 치중하기보다는 언제나 ‘당위’와

17) 기독교사회윤리를 체계화시킨 대표적인 학자는 라인홀드 니버이다. 그러나 그의 현실주의도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미에서만 보아서는 안되며, 성서 및 예수의 가르침을 하나의 목표로 수용하는 일종의 이상주의적 요소가 통합적으로 모색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8) “사회윤리학은 개인윤리의 사회적 영역에의 연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이나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고범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한국 신학 연구소, 1983), 31.

‘가치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용과 용서의 필요성, 폭력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 북한관련 문제의 특수성 인식 등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1. 관용과 용서의 의미 및 필요성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용서’의 태도는 성서적 덕목이며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수용되는 전통적인 가치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다문화 문화 속에서 ‘관용과 용서’의 가치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성서에서 용서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는 장애나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써 제거해 주심으로써 화해와 교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며 이것은 특히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현저히 나타난다.

히브리어로 ‘보내버림’, ‘덮음’, ‘제거함’ 그리고 ‘쓸어버림’ 등의 은유들이 ‘용서’의 개념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용서는 ‘보내버리다’를 의미하는 동사 *salah*이다.¹⁹⁾ ‘덮다’를 의미하는 동사 *kapar*는 특히 제사 전승에 빈번히 나타나며 ‘속죄’나 ‘화해’의 개념을 표현하는 말이다.²⁰⁾ 70인역 성서에서 ‘용서’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용서는 *ἀφιμι*(*afiemi*)이다. 이 말은 ‘보내버리다’를 의미하여 히브리어 *kapar*와 *salah*를 번역한 것이다. *kapar*는 ‘자비롭다’를 의미하는 *ἰλάσσομαι*(*uilasomai*)로 번역되기도 한다.

신약에서 ‘용서’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는 ‘보내버리다’라는 뜻의 동사 *ἀφιμι*(*afiemi*)(마 6:12, 14-15; 9:2; 12:31 등)와 ‘보내버림’이라는 뜻의 명사 *ἄφεσις*(*afecis*)(막 3:29; 눅 3:3; 24:47 행 2:38)가 있

19) 레 4:20,26; 왕상 8:30,34; 시 86:5; 103:3

20) 출29:36; 30:10; 레 8:15; 16:20; 겔 43:20; 45:20

는데 이 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이웃의 잘못에 대한 인간의 용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용서에 대한 윤리적 고찰에서 용서와 사랑 사이를 구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용서’는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회복된 관계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사랑’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회복된 관계, 특히 이웃이 잘되기를 신실하고도 능동적으로 바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²¹⁾ 그런데, 신약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동시에 ‘사랑’하신다. 따라서 인간은 용서와 사랑에 동시에 연루되어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할 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실천은 가능한 것이다.

‘관용의 윤리’에 관한 논문에서 김용환은 관용의 두 가지 성격을 설명한 바 있다.²²⁾ 첫째로, 관용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요구되는 도덕적 명령이다. 우리말에서 관용은 대부분 ‘베풀다’라는 동사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용법이 관용의 덕목에 대한 오해를 낳게 한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무엇을 ‘베풀다’는 것은 힘을 가진 강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그러나 관용의 덕목은 강자의 윤리를 넘어서고 있다. 둘째로, 관용은 덕목일 뿐만 아니라 태도 또는 정도의 문제(matters of attitude or degree)이다. 관용은 사람들 사이에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 공존을 하는 데 필요한 경험의 산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관용은 인간의 불완전한 세계 안에서 그리고 자유와 선택에 직면해서 그 도덕적 성격이 잘 드러나는 덕목이다.

관용과 용서와 관련한 윤리적 덕목 및 가치에 관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람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와 엠마누엘 레비나스이다. 이

21) ‘용서’에 관련된 용어적 정의 등은 『한국기독교대백과사전』(기독교문사 관) 항목: 용서 부분을 참고하였다.

22) 이에 대한 논의는 김용환, “관용의 윤리 : 철학적 기초와 적용영역들”, 『철학』, 제 87집 참조.

들은 유대인으로서 국가 사회주의의 비인간성과 참혹한 2차 대전의 경험을 통해 철학 형성에 영향을 받았다. 레비나스는 자신이 독일군 포로로 갇혀있었을 뿐 아니라 무수한 유대인의 죽음을 경험하였다. 한나 아렌트의 경우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 레비나스는 “1500년 동안이나 기독교 복음의 영향을 받아온 유럽이 것처럼 엄청난 살상과 파괴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전쟁의 폭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 레비나스는 전쟁과 서양철학의 전통은 서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쟁은 사람을 전체에 복종시키며, 전체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참하게 제거해 버리는 것이 전쟁의 속성이기 때문이다.²³⁾

“하지만 타자성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타자와의 관계 한 복판에서 이미 비상호적 관계로, 즉 동시성과 정반대의 관계로 모습을 드러낸다. 타인으로서 타인은 단지 나와 다른 자아가 아니다. 그는 내가 아닌 사람이다. 그가 그인 것은 성격이나, 외모나 그의 심리 상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다름(他者性) 때문이다. 그는 예컨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이다. “하지만 나는 부자이고 강자이다.” 타자는 타자로서 높음과 비천함의 차원에 스스로 처해 있다. 영광스런 비천함. 타자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 과부와 고아의 얼굴을 하고 있고, 동시에 나의 자유를 정당화하라고 요구하는 주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²⁴⁾

타인의 얼굴이 지닌 비폭력적, 윤리적 저항은 강자의 힘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자유를 문제 삼는다. 강자의 힘은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완전히 박탈할 수 있지만 나의 자유 자체를 문제시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힘없는 타인의 호소를 인정할 때 나의 자유, 나의 자기실현을 그대

23) 엠마누엘 레비나스 지,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문예출판사, 2001), 119-121.

24) 위의 책, 101.

로 무한정 추구할 수 없다. 얼굴의 현현을 통해 나의 자발성에 제동이 걸린다.²⁵⁾

레비나스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질수록 책임과 의무에 대한 호소는 커지며, 자유가 이 책임 있는 관심과 헌신으로 전환된다고 말한다. 레비나스의 타자에 관한 논의를 보면 마틴 부버의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연상되기도 하는데, 그가 말하는 타자는 부버의 ‘너’와 구별된다. 타자는 나와 너의 친밀한 관계 속에 용해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는 여전히 나에게 거리를 두고 있고, 낯선 자로서 나의 삶에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타자성의 윤리’를 전개한 레비나스를 통해서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태도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관용, 용서, 타인에 대한 인정 등은 그 태도에 있어서 좀더 근원적인 변화가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는 면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얼굴은 사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절대적 경험이라는 면에서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²⁶⁾

타자의 독자성과 인격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의 연속성을 찾아가는 노력이 수반될 때 개인과 국가 등은 ‘관용’이 실천되는 곳이 된다. 구체적인 면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불관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마가렛 클락(Margaret Clark)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그으려는 성향의 사람들을 지칭하여 ‘경계선을 의식하는 사람들(Boundary minded people)’이란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²⁷⁾ 김용환은 ‘도덕적 명령’으로서의

25) 위의 책, 138-139.

26) 위의 책, 136.

27) Margaret Clark, "Political Tolerance," 김용환의 논문 ‘관용의 윤리’에서 재인용.

관용을 설명하면서, 마이클 코벳과 자신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람들이 불관용하는 근거를 설명한 바 있다.²⁸⁾

첫째로, 불관용은 생물학적 물리적 성격에 기초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종족과 성에 대한 편견과 불관용은 생물학적 토대 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인들이 유색인에 대해 갖고 있고, 남성이 여성에 대해 보이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불관용의 밑바탕에는 이런 생물학적, 물리적 성격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불관용은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피부 색깔과 같은 자연적인 조건 이외에 역사, 문화적인 조건과 교육 환경, 직업과 수입, 그리고 거주 지역 등 사회적인 여러 요소들도 불관용을 일상화시키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첫 번째 요인 보다는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셋째로, 불관용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신념이나 태도에 기초되어 있다. 예를 들어 광신주의가 다른 신앙 체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불관용하는 이유는 그 만큼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 신봉자들이 불관용하는 일이나, 종교적 불관용도 모두 자신이 믿고 있는 이념이나 종교에 대해 강한 확신과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다원종교 사회인데 종교 간의 대립은 아직 심각하지 않지만, 개신교 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신앙 및 가치관에 따른 갈등의 양상이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 아렌트의 경우에도 모든 인간이 갖게 되는 ‘차이성’에 관한 언급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차이성은 특수성과 같은 것이 아니다. -특수성은 존재하는 모든 것

28) 이하의 논의는 김용환 “관용의 윤리 : 철학적 기초와 적용영역들”, 『철학』, 제87집에 의존하고 있다.

에 고유한 타자성의 기이한 성질로서 중세철학에서 모두 특이한 성질을 초월하는, 존재의 네가지 기본적인 보편적인 성격 중의 하나를 지칭하였다. 사실 특수성은 다원성의 중요한 한 측면인 동시에 우리의 모든 정의는 곧 구별이며, 어떤 것을 그 밖의 것으로부터 구별하지 않고는 그것의 본질을 말할 수 없는 바로 그 이유이다. ……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공유하는 ‘특수성’과 살아 있는 모든 것과 공유하는 차이성은 인간에게서 유일성이 된다.”²⁹⁾

성서가 말하는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용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자신이 친히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그의 교훈을 담은 기도문 가운데서도 다소 급진적으로 보일만큼 용서를 강조한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용서해주시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남을 용서할 때만 하나님도 그와 같이 인간을 용서해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속한다. 소위 ‘들추어 내기’는 또 다른 상처와 반목을 양산할 뿐이다. 용서와 관용의 태도가 실천될 때 갈등은 해소되는 것이다.

2. 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 필요성

자크 엘룰(Jacques Ellul)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기술이 지배적인 사회적 힘으로서 출현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기독교 신앙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응답으로 기술에 대한 신학적 의미와 대안을 탐구하였다.³⁰⁾ 폭력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적 정의는 “난폭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폭력은 하나의 힘으로서 강제력이란 말로 표현되기도 하며,

29) 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 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한길사, 2000), 303.

30) 정원범, “자크 엘룰의 윤리사상”, 『현대기독교윤리학의 동향』(예영 커뮤니케이션, 1997), 261-264 참조.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 및 용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쟁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는 이미 가치 평가적인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독교 전통에서도 폭력은 전쟁과 관련되는 경우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문제로 등장한 바 있다. 폭력 문제에 대해 엘틀은 자신의 입장을 기독교적 현실주의라고 말하는데, 현실주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세계 될 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철저히 파악하게 된다. 즉 결과를 두려워하여 현상을 왜곡시키지 않는 태도를 말하고 있다. 사실 분석에 있어서 감정적 충동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물론 엘틀은 성령의 간섭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성과 과학, 기술의 조명을 받아서 현실을 분석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엘틀의 독특성은 ‘현실주의적’인 분석을 행동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많은 경우에 “사실에 기초하여, 이것이 현실적인 한계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의 행동원리를 도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³¹⁾ 즉 현실에 대한 분명한 파악과 윤리적 정당화는 구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 및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잘 적용되고 있다.

정원범은 엘틀의 이런 특이성을 리차드 니버가 언급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섯 유형 가운데 대립유형 및 문화변혁적 유형과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엘틀의 윤리사상이 지니는 궁극적인 의미를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의 다섯 가지 유형과 관련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엘틀은 세상의 일반적인 추세와 경향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실종교를 배격하면서 세

31) 자크 엘틀, 최종고 역, 『폭력: 기독교적 반성과 전망』(현대사상사, 1974), 99.

상적인 경향에 적응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한다는 점에서 그의 입장은 대립 유형(Christ against culture)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는 현상 유지를 배격하면서 현대문명의 근본적인 변혁 즉 혁명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의 입장은 변혁 유형(Christ transforming culture)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³²⁾

엘틀이 언급한 폭력의 법칙은 다섯 가지인데, 오늘날의 폭력 및 전쟁 현상에도 적용되는 매우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사료되어진다. 폭력의 근본적인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엘틀이 말한 폭력의 첫 번째 법칙은 계속성이다. 즉 일단 폭력에서 출발하면 거기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³³⁾ 폭력은 정치적, 사회적, 혹은 인간적 상황들을 단순화시키는 습관을 나타낸다. 하나의 습관이란 그 용어가 말해주듯 재빨리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결코 그것을 끊을 수가 없게 된다고 것이다.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자신 있게 공격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걸프전 등에서 드러난 무력 사용의 효과에 대한 확신이 작용하여 정치적, 사회적 판단이 매우 단순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계속적인 폭력 및 강제력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의 두 번째 법칙은 상호성이다. 그것은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당한다”(마태 26: 52)는 예수의 유명한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다.³⁴⁾ 이 구절과 관련하여 엘틀은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말은 좋은 의미로 쓰건

32) 정원범, “자크 엘틀의 윤리사상”, 『현대기독교윤리학의 동향』(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312.

33) 자크 엘틀, 최종고 역, 『폭력: 기독교적 반성과 전망』(현대사상사, 1974), 111.

34) 위의 책, 112.

나쁜 의미로 쓰긴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폭력의 세 번째 법칙은 동일성이다. 여기서 엘틀은 정당한 폭력과 부당한 폭력, 해방시키는 폭력과 예측시키는 폭력 사이에 아무런 구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³⁵⁾ 폭력은 어느 것이나 다른 폭력과 동일 한 것이다. 즉 경찰의 폭력이나 혁명군의 폭력, 자본가들의 노동자를 향한 폭력 등 모든 종류의 폭력은 같은 것이다. 결국 폭력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인식이다.

폭력의 네 번째 법칙은 폭력은 폭력을 낳는 것이지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이다.³⁶⁾ 이것이 폭력은 거짓의 방법을 능가함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전쟁을 야기하는 이들은 폭력이란 수단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식의 무언가 공리주의적 계산을 갖고 있다. 스스로도 그런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설득의 중요한 방법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엘틀은 증오와 정의를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라세레(J. Lasserre)의 글 “혁명과 비폭력” (Revolution et non-violence)에서 인용하고 있다.

“폭력으로부터 평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일반화된 범죄성으로부터 정의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경멸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존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 증오와 범죄는 정의도 화해도 가져올 수 없고 다만 비통과 비겁과 악과 범죄를 연발할 뿐이다.”³⁷⁾

폭력의 다섯 번째 법칙은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항상 폭력과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쓴다는 점이다.³⁸⁾ 폭력은 원래 매력 없는 것이

35) 위의 책, 115.

36) 위의 책, 119.

37) *Cahiers de la reconciliation*, Paris, 1967, 34-36. 자크 엘틀, 최종고 역, 앞의 책, 121에서 재인용.

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보장 받은 것이라고 장광설(長廣舌)을 늘어놓아 왔다.

3. 북한 문제의 특수성 인식 필요성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은 북한 문제가 갖는 특수성이다. 지금 우리와 대면하고 있는 북한은 매우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흔히 북한에 대해 감상적으로 “참 대하기 힘든 집단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다. 백종국 교수는 북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북한의 정부의 태도는 일종의 유사 종교집단이 되었다. 이 정권은 권력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거의 전부라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각오로 북한 당국은 1백억 달러 이상을 낭비하는 핵 무장을 추구하는가 하면, 굶주린 배를 채우는 데는 백혜무익한 김일성의 우상화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아주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말한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될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⁹⁾

북한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21세기 한민족의 최대 과제이자 주요 과제인 남북통일이 요원한 문제가 되고 만다. 이해의 문제는 단순히 갈등의 극복과 통일을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을 위한 준비 및 필수 단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남북의 경우에도 정치적, 군사적 의미의 통일 이전에 정신적 연대감이 형성되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이데올로기보다도 연대감을 강조하는 통일 논의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통합 이념이나 단일 이데올로기

38) 자크 엘룰, *최종고 역, 앞의 책*, 123.

39) 백종국, 『통합적인 통일과 그리스도인들의 과제2』(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94.

를 앞세워 일체감을 창출하는 것만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질적인 것이 반드시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뒤르캄(E. Durkheim)의 분석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이질적 기능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유기적 연대를 창출함으로써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⁴⁰⁾ 허문영은 통일 방안을 논의하면서 첫 번째로 “참여한 이해 대립이 나타나기 쉬운 한반도 정세 속에서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균형적 역할을 신중히 감당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⁴¹⁾ 대북 관계에 있어서 화해와 협력 정책은 지속해야 되어야 하며, 대북 지원 및 교류의 방법에 대해 나타나는 다양한 대립은 민주 사회의 여론 수렴으로 이해하며 통일을 위한 관심과 준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IV. 결 론

이제 북한과 미국에 대한 태도가 갖는 다양성과 차이에 근거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한다. 필자는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prudence’를 신중함과 사려 깊음이라는 뜻에서 우리 사회의 필요한 덕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발표 등은 북한에 대한 배신감 및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허탈감을 주고 있기도하다. 그러나 이런 때 일수록 교계나 시민 단체는 북한과 미국에 대해 지나치게 직선적이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나타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위 ‘안보 불감증’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며 ‘외교적 기민함’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40) 위의 책, 36.

41) 위의 책, 98.

가운데 미국이나 북한에 대해 관계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분명한 것은 냉전 체제는 끝났으며 경제적 가치가 이념과 정치를 선도하는 세계화의 시대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북한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 전용 가능성에 대한 시비와 의혹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완급의 조절 가운데 지원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개방과 민주화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만이 그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역사 속에서 보듯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현실적으로 강대국과의 외교적 협력 관계를 필수적으로 요청하고 있다.⁴²⁾ 우리 주변의 강대국과 어떤 형식의 친소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갈등 양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도 관용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함에 대한 질책과 경고라고 신앙적으로 바로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2) 최근 중국의 대북공정 관련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강대국 사이에서 어렵게 생존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참고문헌

- 임성빈 외 저, 『통합적인 통일과 그리스도인들의 과제 II』, 서울:예영 커뮤니케이션, 2003.
- 임현진, 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자크 엘룰 저, 최종고 역, 『폭력』, 서울:현대사상사, 1998.
- 제임스 레이첼즈 저, 황경식 외 역, 『사회 윤리의 제문제』, 서울:서광사, 1977.
- 조재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 서울:한울출판사, 2006.
- 존 준커먼 · 데케이 마사카즈 저, 홍한별 역, 『권력과 테러』, 서울:양철북, 2003.
- 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 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서울:한길사, 2000.
- W.S. 뱍코크 저, 문시영 역,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 서울:서광사, 1998.
- Harry R. David and Robert C. Good, *Reinhold Niebuhr On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60.
- Kyle A. Pasewark, *A theology Of Power*, Minneapolis, 1993.
- Noam Chomsky, *Failed states*, Metropolitan books, 2006.
- Robert Jewett & John Shelton Lawrence, *Captain America and the Crusade against Evil*, Eerdmans, 2003.
- Roger G. Bestworth, *Social Ethics*. Louisville, Westminster / John Knox Press, 1990.

K C I